

후쿠시마현내의 아동, 학생 등이 학교 등에서 받는 선량 감소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

문 부 과 학 성

1. 문부과학성에서는 "후쿠시마현내의 학교 건물, 운동장 등의 이용 판단의
잠정적 생각에 대해서(통지)" (2011년 4월 19일자 23 문부과학성 스
제 134 호)를 제시하고 앞으로 가능한 한 아동, 학생 및 유아, 유치원생
(이하 "아동, 학생 등"이라 한다)이 받는 선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건물, 운동장에서 매시 3.8 μ Sv 이상의 공간선량률이
측정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의 옥외 활동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문부과학성에서는 잠정적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사선 모니터링을
실시 강화함과 동시에 5월 11일에 학교 운동장과 유치원 운동장 토양에
관해 "모아서 지하에 집중적으로 두는 방법"과 "상하 치환법" 2개의 선량
감소방법을 교육위원회 등에 제시하였다. 또한, 5월 17일에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 의해 수립된 "원자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즉각적인 대응 방침"에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후쿠시마현내의 교육
시설의 토양 등의 취급에 대해 조속히 대응해 갈 뜻이 명기되었다. 이
방침도 감안하여 문부과학성에서 앞으로 잠정적 생각에 따라 학교 내에서
아동, 학생 등이 받는 선량을 감소시켜 보다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이를 위해서 문부과학성에서는 향후 상기 1. 에 나타난 생각에 입각해서
즉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오늘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의 협력하에 후쿠시마현내의 모든 학교
등에 대해 적산선량계를 배포한다. 이에 따라 아동, 학생 등이 받는
실제 적산선량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② 잠정적 생각에 제시한 연간 1mSv 에서 20mSv 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가능한 한 아동, 학생 등이 받는 선량을 줄여 나간다는 기본 방침으로 금년도 학교에서 아동, 학생 등이 받는 선량에 대해 당분간 연간 1mSv 이하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계속해서 아동, 학생 등의 심신의 건강, 발달 등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욱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 ③ "원자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바탕으로 더욱 안심 확보를 위해 문부과학성이나 후쿠시마현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운동장, 유치원 운동장의 토양에 관한 아동, 학생 등이 받는 선량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설치자에 대해, 학교 시설의 재해 복구사업의 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대상은 토양에 관한 선량 감소방법이 효과적인 학교 운동장, 유치원 운동장의 공간선량률이 시간당 1 μ Sv 이상의 학교로 하고 설치자의 요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